

‘강제동원’ 정신영 할머니, 80년 만에 일본 간다

미쓰비시 공장서 노동…1심 승소·항소심 진행중

근로정신대 돋는 ‘소송지원회’ 회원들 만남 예정

일제강점기 미쓰비시중공업 일본 나고야 항공기제작소에 강제 동원돼 모진 고역을 치른 정신영 할머니(95·나주)가 광복 80년 만에 강제 징용 현장을 다시 찾는다.

4일 (사)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에 따르면 정 할머니는 오는 6~8일 시민모임 회원들과 함께 일본 나고야를 방문한다. 1945년 10월께 구사일생으로 고향 나주에 돌아온 이후 강제 징용 현장을 다시 밟는 것은 꼭 80년 만이다.

정 할머니가 일제의 강압과 회유에 못 이겨 일본으로 끌려간 것은 14세의 어린 나이였던 1944년 5월말로 거슬러 올라간다.

나주초등학교 졸업 후 가사일을 둘던 중 마을 구장(區長·曼단 행정관리)과 담임선생님의 ‘일본에 가면 돈도 별고 상급 학교에도 진학할 수 있다’는 강요에 끋이겨 일본으로 향하는 배에 몸을 실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의 문을 두드렸다.

결국 지난 2020년 1월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의 도움을 받아 미쓰비시중



1944년 5월말 나주대정국민학교(현 나주초등학교) 6학년 재학생과 졸업생 등 24명이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 항공기제작소에 동원됐다. 1944년 6월경 일본에 도착해 본격적인 노동에 투입되거나 고아성 앞에서 촬영한 기념사진.

승소한 뒤 미쓰비시중공업의 항소로 현재 광주고등법원에 계류 중이다.

정 할머니는 근로정신대 소송을 돋고 있는 ‘나고야소송지원회’ 회원들과 투병 중인 달라하시 마코토 대표를 만나는 한편, 7일 오후 1시 나고야에서 개최하는

정 할머니는 “오랜 세월이 흘렀어도 지금 당시의 공포와 폭격기 굉음 소리는 지금까지 잊어지지 않는다”며 “이제는 지팡이를 짚어야 움직일 수 있지만, 죽기 전에 그때 억울하게 죽어간 친구들 흔적이라 찾고 싶다”고 말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달러 제조사업 투자” 5억 챙긴 50대 여 정역 2년

달러 제조 사업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5억 원을 받아 챙긴 50대 여성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2형사부 박재성 재판장은 특정경제범죄 기종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58·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8월부터 같은 해 10월 사이 광주에서 한 피해자에게 달러 제조 사업 투자 명목으로 5억 14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말레이시아에 달러를 채어내는 사업이 있다. 기계를 빌려 채어내면 합법이다. 원금의 5배를 보장하겠다”고 피해자를 속였다.

그러나 A씨가 목격했다는 달러 제조

과정은 이미 2000년대 중반부터 문제시된 사기 수법이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도 “내가 달러를 직접 채어내는 것을 봤다. 나도 투자한 사업”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A씨는 당시 투자 수익을 전혀 얻지 못하고 있었고, 사업의 실제에 대해 상당한 의심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고수익을 약속하며 투자를 권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코인 투자, 카드대금 결제 등에 투자, 투자금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고 피해 대부분을 회복하지도 못했다”면서 “피해자는 평생 모든 재산을 잃고 빚더미에 앉아 경제적·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영진 기자 looks@



선배와 함께하는 캠퍼스 투어 4일 전남대학교 교정에서 열린 선배와 함께하는 캠퍼스 투어에 참가한 전남고등학교 학생들이 설명을 듣고 있다. 이번 캠퍼스 투어는 학생들이 직접 대학 공간을 경험하며 인터넷 정보만으로는 알 수 없었던 실제 대학 생활 이야기와 선배들의 솔직한 조언을 들으며 나의 흥미, 적성, 전공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3억대 사기…검찰, 50대 수산업자 구속 기소

여수지역 수산업자들로부터 3억 6000만 원을 편취한 50대 수산업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 순천지청이 구속기소한 A씨(55)는 2022년 5월 지역 수산업자 B씨에게 “수산업체를 대신 경영하고 수익을 분배해 줄 테니 운영 자금을 달리”고 속여 1억 5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2020년에는 수족관 유지 비용을 빌미로 C씨에게 8000만 원을 빌린 후 갚지 않았다. A씨는 검찰 수사가 개시된 2024년 D씨에게 “새조개 구매 대금을 빌려달라”며 1억 3000만 원을 추가 편취한 혐의도 적용됐다.

A씨는 해양 관련회사 대표 직함과 박사 학위 등을 내세워 영향력을 과시하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그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참고인들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하고 가짜 거래 명세서, 종자생산확인서 등을 제출해 불송치됐다.

하지만 검찰이 보완 수사에 나서면서 A씨의 범죄 혐의가 드러났다. A씨는 검찰이 계좌거래내역, 편취내역 등을 대조하며 추궁한 결과 전부 자백했다.

A씨는 벌린 돈 대부분을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중형 선고를 위해 공소 유지에 집중하고 불송치 사

북태평양 고기압 영향…10월 일 최고기온 극값 경신

2025년 가을철(9~11월) 평균기온이 역대 2번째로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광주지방기상청이 발표한 ‘2025년 가을철 기후특성’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 가을철 평균기온은 18도로 기록됐다.

이는 2024년 평균 기온인 18.9도보다 0.9도 낮고, 평년 기온 16도보다 2도 높은 수준이다.

기상청은 10월 하순부터 11월 중순 사이 일시적으로 기온이 떨어졌으나, 전반적으로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지속됐다고 설명했다.

실제 9~10월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하면서 기온이 떨어지는 변동도 보였다. 높았던 기온만큼 해수면 온도도 역대 2번째를 기록했다.

기온은 우리나라 주변 해역 해수면 온도는 22.7도로 최근 10년 중 지난해 23.5도의 뒤를 이었다.

강수인수도 평년에 비해 늘어나며 1985년 37.4일에 이어 2번째로 많았다.

기온은 광주·전남지역 강수일수는 32.8일로 평년 강수일수인 22.3일보다 10.5일 더 많았다.

이는 따뜻하고 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을 받은 가운데, 북서쪽의 차고 건조한 상층 기압골이 자주 남하하면서 비가 끊임없이 전해졌다.

다만 찬 대륙고기압이 일시적으로 확장

북형 상점가를 순회하며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을 독려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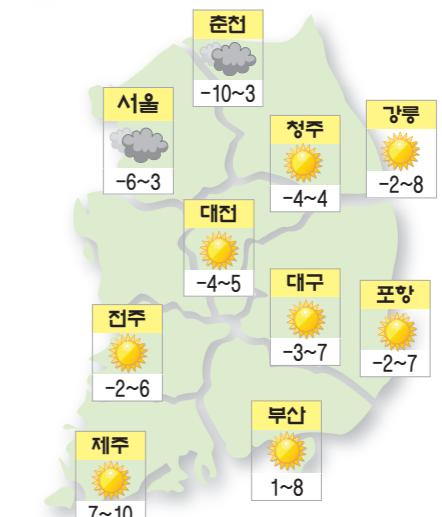
이후 온누리상품권 가맹률은 지난 8월 기준 21%대 수준에서 3달여 만에 53%대까지 수직 상승했다.

상인들 입장에서도 소비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골목형 상점가 집중 밸류에 나섰다.

실제 지난 8월 말부터 직원들이 가맹 등록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 내 골

오늘의 날씨

해설 07:26 일설 17:18
해설 17:20 일설 07:43



광주	0~7
목포	2~7
여수	1~7
순천	-1~7
구례	-2~7
광주	1~8
완도	2~9
목포	5~9
고흥	0~9
진도	3~8

목포 일몰 (고) 01:33 / 14:27
설물 (저) 07:00 / 19:47

여수 일몰 (고) 09:14 / 21:17
설물 (저) 02:32 / 15:18

지하철역 방화 30대 실형

만년필 ○…지하철 역사에 불을 지르고 도주한 30대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2형사부 박재성 재판장은 일반물건방화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

A씨는 지난 1월2일 오후 10시 18분 광주 동구 금남로 4가역 지하 4층 승강장 앞에 있던 철제 쓰레기통을 불태운 혐의로 기소.

조사 결과 A씨는 아무런 이유 없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해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

또 5분 가량 불이 났음에도 아무런 진화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불이 나자 지하철을 타고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등 무책임한 행동을 한 것으로 파악돼.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지한 선고기일에 일의로 불출석하고 도주까지 했다. 죄책과 법정이 가볍지 않다”면서 “지적장애(3급)가 있는 점과 절도, 사기, 점유이탈물횡령 등 여러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했다.

임영진 기자 looks@

중등생 휴대전화 빼앗아 판매 폭행까지…10대 2명 불구속입건

중학교 동급생을 둔기로 폭행해 스마트폰을 빼앗은 뒤 중고거래 플랫폼에 올려 판매한 10대들이 경찰에 불집했다.

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는 4일 강도상해 등 혐의로 A군(16) 등 10대 2명을 불구속입건했다.

이들은 지난달 22일 오후 11시께 광주 북구 신용동 한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일면식 없는 B군(16)을 둔기로 폭행하고 스마트폰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B군의 스마트폰을 빼앗아 중고거래로 되팔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군 등은 휴대전화를 달리는 자신들의 요구를 B군이 거절하자 지하주차장에 있던 둔기 등으로 폭행했다.

경찰은 최근 A군 등의 신상을 특정하고 수사에 착수해 경찰에 자진 출석한 이들의 신병을 확보했다. 임영진 기자 looks@

남구, 골목형 상점가 ‘온누리상품권 가맹’ 경쟁

석달 만에 21%→53.3% 상승…상인들 매출 상승 기대

광주 남구가 추진 중인 상생 경제 활성화 사업이 가시화되고 있다.

남구는 4일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관내 동네 상권 82곳

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한 이후 온누리상품권 가맹률이 급증하고 있다”고 밝

하면서 소비자들이 동네 상권에서도 자유롭게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고 있는 것이다.

남구는 앞서 골목경제 활동과 소상공인 소비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골목형 상점가 집중 밸류에 나섰다.

실제 지난 8월 말부터 직원들이 가맹 등록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 내 골

목형 상점가를 순회하며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을 독려했다.

이후 온누리상품권 가맹률은 지난 8월 기준 21%대 수준에서 3달여 만에 53%대까지 수직 상승했다.

상인들 입장에서도 소비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골목형 상점가 집중 밸류에 따른 혜택을 제공하는 행사를 통해 지역에 협력적인 상권 생태를 이루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남구는 지역 내 소비 진작과 골목형 상점가와 온누리상품권 결합을 과정화 회복의 핵심 전략으로 삼고 있다.

지역화폐인 남구 동행카드를 30억 원 규모로 발행했으며, 해당 회폐는 전액 판매된 상태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